



겨울철 우려했던 트윈데믹 '비상'

인플루엔자 3주 연속 최고치... 코로나19도 급격 확산세

겨울철을 맞아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증가와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제주지역 '트윈데믹'(2개 질병 동시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내에서는 560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최근 일주일간 도내에서는 총 4374명이 확진됐다. 이는 전주 대비 387명이 증가한 수치다. 일별로 보면 18일 402명, 19일 402명, 20일 945명, 21일 714명, 22일 760명, 23일 591명, 24일 560명 등으로 일평균 625명을 기록했다. 현재 도내에서 격리중인 인원은 4002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1명이다.

제주지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연속 3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도 급격하

게 확산되고 있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8명으로,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36만2332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최근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올해 51주(12월 11~17일)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 당 117.6명으로, 질병관리청이 9월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49주부터 3주 연달아 최고치를 갱신했다.

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비율은 올해 49주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51주에는 인플루엔자 유행기준(4.9명)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비율의 3배 수준에 이른다.

지난 19일 기준 도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은 14만8900여명으로 접종률은 73.6%이며, 계절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예방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9000여명을 자체사업 대상으로 추가·확대, 26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합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연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당부했다.

현재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어르신 대상 접종은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집으로 가자"... 정상 찾은 제주공항. 강풍과 폭설로 마비됐던 제주공항이 25일 항공기 대부분 운항되며 정상을 되찾았다. 강희만기자

고립됐던 제주섬 열렸다

22~24일 강풍 동반한 폭설로 하늘·바닷길 끊겨 차량 고립·버스 충돌 등 사흘간 사고 66건 신고 수만명 발 묶였던 제주공항 그제부터 정상 회복 기상청 "산지는 당분간 영하권으로 기온 떨어져"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제주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설이 내리면서 사고가 속출했다.

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해제된 전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산간에 사흘간 최대 1m에 육박하는 많은 눈이 쌓였다.

한라산 사제비에 98.3cm의 눈이 내려 쌓인 것을 비롯해 삼각봉 85cm, 어리목 63.6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산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가시리 33.6cm, 산천단 19.4cm, 오등 12.5cm, 유수암 11.7cm, 세별오름 8cm, 수산 6.4cm, 중문 4cm 등의 적설량을 보였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주 전역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총 66건의 구조·구급·안전 조치 요청 신고가 들어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2일 오전 10시29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려니숲길에서 관광객 2명이

쏟아지는 눈에 오도가도 못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23일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서 차량 2대가 눈길에 고립됐다. 이같은 폭설에 의한 고립사고는 사흘간 1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도 많았다. 지난 23일 오후 1시48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중학생들이 탄 버스 2대가 서로 충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중학생 등 24명이 다쳤다. 이밖에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표선면 세화리, 조천읍 와산리, 외도1동 등 제주 전역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또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낙상 사고가 이 기간 10여건에 달했으며 강한 바람에 신호등이 꺾이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다.

하늘길과 바닷길이 마비되면서 수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기가 이틀간 무더기 결항되면서 제주를 떠날 예

정인 관광객 등 수만명의 발이 제주에 묶이기도 했고, 다른 지역을 찾았다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한 도민들도 많았다.

한국항공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공항에 강풍 특보와 급변풍 특보가 내려져 지난 22일에는 279편, 23일에는 사전 결항편(296편)을 포함한 477편 등 이틀간 750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됐다. 이에 탑승 가능한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거나 예약을 변경하기 위해 많은 대기 고객들이 공항 발권 창구에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다.

강풍과 눈발이 잦아들고 제주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해제되면서 24일부터는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다. 현재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정상 운행하고 있지만 제주를 잇는 바닷길 중 제주-진도 노선이 기상 악화로 인해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반면 제주-목포와 제주-녹동 노선은 정상화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중간간 이상 도로의 경우 눈이 녹고 얼기를 반복하면서 미끄러운 것으로 예상되니 차량 운행시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박소정 기자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폐건축물 등 폐기를 불법매립 현장.

폐업 양돈장 불법행위 또 있었다

자치경찰단 68곳 전수조사해 4건 적발

지난 10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양돈장 폐업과정에서 가축분뇨와 폐건축물 등을 대량으로 불법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자치경찰단이 도내 폐업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추가 적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폐업 양돈장 6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매립 및 무단 적치 등의 혐의로 2건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양돈장 폐업 과정에서 건축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제주시 43개소, 서귀포시 25개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귀포시 표선면 A양돈장의 경우 폐업 시 시설물 철거 비용이 10억여원으로 예상되자 비공정감을

목적으로 석면 등 일부 폐기물만 정상 처리하고, 폐콘크리트와 폐건축폐물, 폐가전 등 폐기물 총 2406t과 미처리 가축분뇨 18t을 최대 7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양돈장 전 대표와 관리인, 굴삭기 기사 등을 폐기물 관리법과 가축분뇨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 B양돈장은 폐기물 처리신고도 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 내에 폐콘크리트 등 993t을 불법 보관해 폐기물 적정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폐업 시 5t 미만의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C업체와 액비 적정처리 행정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D업체는 관련 부서로 통보해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축산·환경부서, 환경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내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적정처리 합동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제주지검과 공조해 사건 초기부터 엄정 수사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원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하례조생**

제라몬 **미니향**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온주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만본) **가정원예(조경수)(2~7만본)**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허균, 팔삭, 세이봉, 금귤, 당유자, 아마니스
공천, 흥진, 카리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 010-070-2202-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점! 사전예약 탐빛1호, 선진,
❖ 1년성 규격묘, 2~5년성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주문생산 선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수산물품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그랜드보청기

연말연시 물가안정 사은행사

보급형, 경제형, 고급형, 프리미엄형중 선택

충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을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리 사거리 북동쪽 서사리사거리 그랜드보청기
시청방면 1층 삼각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